



하나금융그룹, ‘크리스마스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2일 명동사육에서 ‘크리스마스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손님들의 따뜻한 온기를 함께 전달했다. 손님과 임직원, 퇴직직원이 ‘하나’의 마음으로 준비한 총 125개의 ‘크리스마스 행복상자’는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보육시설 등 18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GC녹십자, LMO 안전관리 우수… 과기부 장관상
GC녹십자는 지난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다부처 생명연구지원 성과교류회에서 ‘시험·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GC녹십자 박한나 R&D운영부부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C녹십자



사이버한국외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대학 홍보 서포터즈 학생들이 지난 20일 서울 개포동 구름마을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글로벌대학으로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사이버한국외대의 특성을 반영하듯 외국인 재학생들의 참여도 이어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벤츠코리아, ‘윈터 스틸’ 팝업 운영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겨울을 맞아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모나윙 스키 리조트에서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팝업 행사 ‘윈터 스틸’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벤츠 고객만을 위한 전용 공간 ‘메르세데스-벤츠 윈터 라운지’를 내년 2월 22일까지 운영한다. 벤츠 차량 키 또는 메르세데스 미 애플리케이션 인증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24일과 25일, 31일, 내년 1월 1일에는 ‘홀리데이 카테일 나이트’를 진행하며, 매주 토요일에는 국내 누적 500만 고객을 모은 할리우드 블럭버스터 ‘F1 더 무비’를 상영한다. /양성운 기자

인사

◆**신영** (승진) △ 개발부문대표 손종구 사장 △ 엔지니어링본부장 김재훈 상무

부음

▲강재수(일암의료재단 삼례고려병원 이사장)씨 별세, 박미혜씨 남편상, 강경진·경석(동아일보 사회부 차장)씨 부친상, 김지혜씨 시부상, 이세준씨 장인상 = 22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5일. (063)250-1444
▲홍신자 별세,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모친상 = 2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5일.

현대차그룹, 美 IIHS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

아이오닉9·G80 등 ‘TSP+’ 등급
글로벌 안전 브랜드 위상 공고히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최고 권위의 충돌 안전 평가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글로벌 최고 안전 브랜드 위상을 확고히 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이하 IIHS)가 발표한 충돌 안전 평가 결과, 제네시스 G80과 기아 쏘렌토가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을,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톱 세이프티 픽(TSP) 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과로 현대차그룹은 2년 연속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 기록을 달성했으며, 특히 TSP+ 등급 획득 차종을 지난해 12개에서 18개로 대폭 늘리며 안전과 품질에 대한 타



현대차 아이오닉 9.

협 없는 의지를 증명했다.
올해 TSP+ 등급을 획득한 모델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코나 ▲투싼 ▲싼타페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쏘나타 등 현대차 8개 차종과 ▲EV9 ▲스포티지 ▲쏘렌토 ▲텔루라이드 ▲K4 등 기아 5개 차종, ▲GV60 ▲GV70 ▲GV70 전동화 모델 ▲GV80 ▲G80 등 제네시스 5개 차종이다.
TSP 등급에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싼타크루즈, 제네시스 ▲G90 등 총 3개 차종이 선정됐다.

오뚜기, ‘6·25 참전용사’ 함태호 창업주 애국정신 이어간다

유공자·가족 대상 사회공헌 활동 전개

오뚜기가 6·25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6·25 참전용사였던 오뚜기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의 애국정신을 계승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하겠다는 오뚜기의 의지를 담아 기획됐다.

오뚜기와 국가보훈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등과 협력해 참전유공자 및 가족들에게 오뚜기 제품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직접 조리가 어렵다는 점과 구비된 식재료 등이 부족해 현장에서 식사를



오뚜기가 6·25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다. /오뚜기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재가보훈 실무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오뚜기 제품 구성을 마련했다.
하절기에는 참기름, 순후추 등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스류와 양념류, 동절기에는 삼계탕, 상온죽 등 겨울철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보양

간편식을 중심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후원 물품은 각 가정으로 직접 전달되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오뚜기의 의지를 담고 있다.
오뚜기는 ‘국가가 있어야 회사도

아이오닉 9와 EV9이 전면·측면 충돌 평가와 충돌방지 시스템 평가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 등급 ‘훌륭함’을 받은 것을 필두로, 준중형 SUV 아이오닉 5·GV60와 중형 세단 아이오닉 6 등 E-GMP 전기차는 다양한 차급에서 TSP+ 등급을 획득했다.
IIHS는 충돌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에 TSP+를, 양호한 성적을 거둔 차량에 TSP를 부여한다.
현대차그룹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그룹의 노력이 세계 최고 권위의 평가를 통해 2년 연속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해 고객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있다’는 창업주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충북 음성군 오뚜기 대풍공장에 가로 10.5m, 세로 7m에 달하는 대형 태극기를 지상 59.5m 높이로 우뚝 솟은 대형 계양대에 게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전방 유해발굴지역 군부대 지원, 국립서울현충원 헌충탑 참배 및 장병 묘역 정화 활동 등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보훈·애국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6·25 참전유공자들은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영웅”이라며, “삶의 마지막까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후원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금호타이어,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정일택 사장 등 주요 경영진 참석
투명한 기업문화 확립 의지 표명

금호타이어가 22일 함평신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부지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금호타이어는 ‘윤리경영 선포식’을 통해 전 임직원이 윤리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강령 준수를 통한 책임 있는 윤리경영 실천과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 경영기획본부 임완주 전무, 안전생산혁신본부 황호길 전무, 함평공장건설단 정영모 상무, 설비구매담당 김동환 상무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리경영 선포식’은 함평과 폴란드의 신공장 건설공사 무사고·무재해를 기원하는 노사 합동 ‘안전기원제’와 함께 실시되었으며 행사에는 임직원을 대표하여 설비구매담당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동환 설비구매담당 상무가 22일 함평공장 부지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김동환 상무가 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경영진들과 함께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함평과 폴란드에 미래형 스마트 타이어 생산기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까지 연간 530만본 생산 규모의 함평 공장을 건설하고 2028년부터 본 가동에 나서며, 같은 해 연 600만본 생산 규모의 폴란드 공장도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